

GTX-C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이데일리, 8.7) >

◆ 첫삽도 못 뜬 GTX-C, 2028년 개통 물건너갔다

- 작년 말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나, 아직까지 실착공을 위한 착공계 미제출
- 공사기간(60개월) 적용 시 2028년 개통 어려울 전망

□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작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(GTX-C)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,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며, 올해 3분기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.

□ 착공계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사를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3964)
		담당자	사무관	백정호 (044-201-3983)